



5면

야구장 철거 착수... 문화시설 건립

# 전주매일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음 12월 22일) 제31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차세대 교통수단 기술 선점 미래 성장동력 확보 '탄력'

전북도 하이퍼튜브 개발사업, 과기부 예타 대상 선정  
최종 확정시 운영위 등 구성 거쳐 2025년부터 추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제도권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이에 전북도가 차세대 교통수단의 기술을 선점하고 또 하나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 종합시험센터 부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후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를 신청했지만 핵심기술개발 연구 선형 하이퍼튜브 상용화 로드맵 미흡 등의 사

유로 예타 대상선정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이에 도는 지난 연구개발(R&D) 예타 대상사업에 미선정된 사유를 보완해 하이퍼튜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시험·검증, 하이퍼튜브 상용화에 이르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를 거쳐왔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외 도 지휘부 등이 국토부 장관 과기정통부장·차관, 과학기술연구본부 국·과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해 또 하나의 협치 성과를 일궈냈다.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조1,000억원 중 1단계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377억원을 투자해 새만금 농생명용지(1~3공구)에서 하이퍼튜브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시작품(2km)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성능 검증을 추진한다.  
1단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면 2단계로 2031년부터 2037년까지 7,8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2km 시험선로 구축을 통한 상용화 연구 등 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사업단 및 운영위원회 구성을 거쳐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으로 2023년을 성공적으로 출발하게 됐고, 이는 민선 8기 2년 차를 맞아 도민과 함께 전진·도약·옹비하는 한 해를 시작하며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지(도전경성, 挑戰竟成)가 담긴 첫 번째 성공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김성수·김만기·김정기 전북도의회와 함께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있다.

## “노을대교 4차선 확장·조기착공 공동 대응”

심덕섭 고창군수·권익현 부안군수, 사업비 증액·조기착공 방안 마련 강력 촉구

고창군과 부안군이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을대교 4차선 확장과 조기착공을 위해 강력한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을대교 4차선 확장 및 조기착공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인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덕섭·권익현 군수는 공동건의문에서 “고창·부안군과 전북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20여

년 만인 지난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노을을 테마로 한 관광형 명품 해상교량을 건설함으로써 서해안 물류 거점 도로망을 물론 새만금-변산반도국립공원-고창갯벌-선운산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축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의 왕복 2차선 계획으로는 노을대교의 위상과 의미가 퇴색되고 그 역할에 한계가 분명하다”

며 “노을대교가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차선 확장 및 사업비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을대교 건설사업 입찰이 낮은 공사금액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우려와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익에 걸쳐 유찰돼 사업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조기착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부안=김석진기자

## 도내 92개 농축협 조합장들 “공명선거 결의”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전북지역 92개 농·축협 조합장과 함께 2023년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12일 전북본부에서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영일 본부장을 비롯해 김원철 농협중앙회 수석이사(부안농협 조합장), 관내 92개 농·축협 조합장과 13개 시군지부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시조합장선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중앙본부 법무지원국장(소인영 변호사)으로부터 최근 농축협 사고사제 관련 유의사항 전달 등의 시간을 가졌다.  
그간 전북농협은 제3회 동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초청 위탁선거법의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등에 대한 특강도 병행해 실시했다.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로 선거운동 방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선거운동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아울러, 선거일은 3월 8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김영일 본부장은 “후보예정자 및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12일 농협 전북본부에서 열린 2023년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

## 설 제수·선물용 농산물, 겨울철 시설 채소류 안전관리 강화

전북 농관원, 안전성조사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또는 선물용 농산물과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시설 채소류 등을 대상으로 한 잔류농약 463성분에 대해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또는 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주요 산지와 산지유통센터(APC), 전통시장 등에서 출하 전 유통판매중인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겨울철 생산량이 많은 주요 시설 채소류 등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조사를 다음달 28일까지 펼칠 방침이다.  
주요 조사대상 농산물은 사과, 배, 딸기, 밤, 단감, 도라지, 표고버섯, 시설 채소류 등이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 전 농산물 출하연기·폐기 등 시중유통을 차단하며, 산지유통센터(APC) 및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 농산물은 회수 및 폐기 등 조치를 위해 지자체(시·군·구)에 통보할 전망이다.  
김민욱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소비자에게 안전

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연중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추석 명절 및 김장철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출하 전 폐기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농업인들에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